부산시립무용단 Busan Metropolitan Dance Company 특별 공연

2002 젊은이들의

첫째마당 2002.1.17(목) 19:30 부산문화회관소강당

1 승 무 2 산조춤 3 호남검무 4 설장고춤 5 살풀이춤 6 태평무

주 최 부산광역시

■예매처/ 부산은행전지점 ■회 원 권/ 균일 3,000원 ■공연문의/ 부산광역시립예술단 홍보부 607-6070~3 부산광역시립무용단 607-611

남포동/ 문우당서점 (버스정류소 앞 245-3843) 서면/ 부산음악사 (서면학원 옆 803-1527) 영광도서 (복개천 816-9500) 동보서적 (태화쇼핑 옆 803-8000) 금정/ 신나라 레코드 부산대점 (부산대 앞 518-0686) 동래/ 영창피아노 (수안로타 552-3719) 대연동/ 면학도서 (경성대 앞 623-9404) 해운대/ 해운대약국 (해운대시장 입구 752-0100) 롯데 나뚜루아이스크림 (해운대 신도시 701-7756)

전통춤 연구 발표

둘째마당 2002.1.18(금) 19:30 부산문화회관소강당

1 신칼대신무　2 장 고 춤　3 태 평 무　4 승무　5 도살풀이춤　6 설장고춤

· 무용감독 : 이노연(부산시립무용단 수석안무자)

· 연습지도: 홍기태 · 진행/ 이정식 · 소품/ 안정숙 · 기획 · 해설/ 박소윤 · 무대/ 김진복 · 조명/ 이우희 · 음향/ 최영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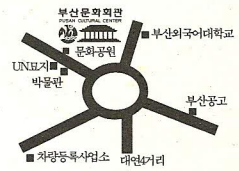
지하철 이용시

1호선 · 부산진역 하차 - 134번 환승
· 범 일 역 하차 - 25, 68, 93번 환승
· 서 면 역 하차 - 25, 68, 93번 환승 (롯데 백화점 옆)

2호선 · 대 연 역 하차 - 51번 환승 (도보 15분 소요)

교통편

25번 (용당-문화회관-서면-당감동)
51번 (전포동 대우자동차-문화회관-부산대학교-구서동)
51-1번 (문화회관-외국어대(회차)-부산대학교-구서동)
51-2번 (감만동-외국어대-문화회관-부산대학교-구서동)
68번 (용당-문화회관-주례-동아대학교-하단)
78번 (용당-문화회관-양정-연산동-온천2동)
93번 (용당-문화회관-조방앞-당감동)
134번 (용당-문화회관-중앙동-송도 안마을)
378번 (용당-문화회관-시청-온천2동)



■ 승 무 – 김 주 연 (단원)

중요무형문화재 제27호인 승무는 한국무용의 정수로써 멋의 절정을 자아낸다. 또한 이 춤은 한의 비탈을 넘어서 장삼의 선이 가지는 기개로써 자유와 영원을 희원하는 예술성이 높이 평가되고 있는 대표적인 민속춤이다.본 승무는 호남형 '이매방류 승무'를 실제 강습을 통해 발디딤새와 호흡법, 장삼 자락이 펼치는 선의 움직임을 중심으로 연구함으로써 승무의 내면적 '멋'의 자락에 다가서고자 한다.

· 뒷장고: 장래훈(수석단원)

■ 산 조 춤 – 심 재 숙 (단원)

산조춤은 산조 음악에 맞추어 추었던 실내 음악의 홀춤이다. 이 산조춤은 그 음악이 우조와 평조 그리고 계면조를 동시에 사용하여 엇박의 묘미를 많이 취하고 있어서 춤사위 역시 우조의 우아함과 평조의 안정되고 편안함 그리고 계면조의 섬세하고 아기자기한 맛이 복합적으로 표현되는 고도의 절제된 기교가 그 특징이다. 이번 공연은 부채 산조춤으로서 김진홍 선생님(중요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 제97호 살풀이춤 이수자)의 강습회를 통해 그 호흡과 춤선을 중심으로 연구해 보았다.

■ 호 남 검 무 – 서 지 영 (수석단원)

황창랑무라고 불리는 이 춤은 신라 소년 황창랑이 적국인 백제에 들어가 칼춤을 추다가 백제왕을 찔러 죽인 후 죽음을 당한 뒤 신라인들이 이를 애석이 여겨 그의 얼굴을 닮은 가면을 쓰고 칼춤을 춘데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조선조에 이르러 궁중무용으로 되면서 가면을 쓰지 않고 무구화된 칼을 사용하여 평화롭고 유연한 동작으로 연결된다. 본 공연은 우봉 이매방 선생님의 호남검무를 바탕으로 군무의 형식을 1인무의 형식으로 변화시켜 칼놀림의 섬세함과 동작의 정교함을 집중적으로 연구, 분석해 보았다.

■ 설 장 고 춤 – 김 진 영 (단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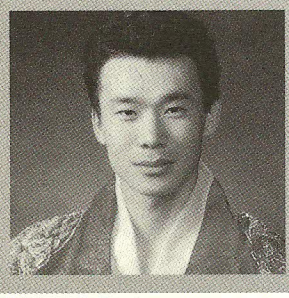
설장고춤은 원래 농악에서 장고잽이 중 가장 뛰어난 잽이가 나와서 장고를 매고 치는 개인 놀이에서 발전된 춤으로써 궁편과 채편의 음율이 마치 음과 양같이 각기 다른 소리를 내며 음의 조화를 이루며 추는 춤이다. 이번 공연에서는 각기 다른 장단에 가볍게 발을 옮기면서 도약하여 추는 춤과 다양한 장구 가락을 구사하는데 중점을 두고 연구해 보았다.

■ 살 풀 이 춤 – 오 숙 례 (단원)

중요무형문화재 제97호인 이 춤은 액을 풀고 나아가 행복을 맞이한다는 종교적 소원을 비는 무속에서 시작되어 기방권번의 예인들을 거쳐 전문 예인들에 의해 널리 추어지게 되었다. 민속춤의 대가 한성준옹에 의해 1936년 처음 살풀이라는 명칭으로 무대화되어 인간문화재 한영숙 선생에 의해 계승되어 오늘에 이른다.'정중동', '동중정'이 배어나면서도 한과 흥의 조화로움과 자유로움이 환상적인 분위기를 자아내어 보는 이로 하여금 무아지경에 이르게 하는 매력을 지닌 춤이다. 이번 공연에서는 한영숙류 특유의 호흡과 발디딤, 그리고 수건과 이야기 나누는 듯한 춤사위들을 중심으로 연구하여 살풀이춤만이 가진 정교함 속에 묻어나는 애절함을 이끌어내고자 한다.

■ 태 평 무 – 서 정 숙 (단원), 류 준 (단원)

중요무형문화재 제92호인 이 춤은 무속 장단에 맞춰 왕과 왕비가 궁중 복식을 입고 추는 우아하고 화려한 민속춤으로써 태평성대를 의미하고 있다. 이 춤의 특징은 경쾌하고 절도있게 몰아치는 진쇠 장단을 바탕으로 섬세하고 빠르게 딛는 발디딤의 기교가 다양하고 그 발을 구르는 동작이 경묘하여 외씨버선의 아름다움을 더하는데 있다고 하겠다. 이번 공연에서는 '강선영류 태평무'를 실제 강습을 통해 익히고 장단과 춤사위의 어울림, 섬세한 발디딤새를 중심으로 연구함으로써 태평무 특유의 흥과 멋을 내어보고자 한다.



■ **신칼대신무 – 장 해 정 (단원)**

중요무형문화재 제79호인 신칼대신무는 제주도 지방의 무속에서 유래된 춤으로 액을 피하고 평안을 기원하는 굿의 영신(迎新)과 송신(送信) 때에 추는 춤이다. 장단은 느리게 시작하여 점점 빠르게 몰아치는 장단으로 연결되며 인간적인 축원의 감정이 신에게 전달되는 듯한 절제 속에서 풀고 조이는 춤사위가 무속적인 신비로움을 맛보게 한다. 이번 공연에서는 민속적인 장단에 맞춰 짜여진 것을 토대로 즉흥성과 몸을 굽히고 앉고 서고 하는 동작의 구성에 중점을 두고 연구해 보았다.

■ **장고춤 – 박 성 미 (단원)**

장고춤은 호남지방에서 발전되어 다른 지방으로 전파되었다. 이 춤은 느린 장단에 맞추어 흥에 겨운 춤을 추다 차츰 빠른 장단의 화려한 장고 가락을 구사한다. 본 공연에서는 전통 농악의 장고춤에서 그 가락과 춤사위를 발췌한 춤으로 다양한 발동작과 유연한 손짓춤을 중심으로 연구함으로써 그 흥과 신명을 살리는데 중점을 두고 연구해 보았다.

■ **태평무 – 정 은 정 (단원)**

중요무형문화재 제92호인 태평무는 궁중의 왕비 의상과 같은 화려한 복식을 갖추고 나라의 태평성대를 표현하는 춤으로 멋과 흥을 실은 발디딤이 섬세하고 민첩하며 다양한 것이 그 특징이다. 또한 절제된 상체의 움직임과 섬세한 손놀림이 우아하면서도 절도가 있어 그 멋을 더한다. 이번 공연에서는 전반적인 춤태와 날렵한 발동작을 중심으로 연구해 보았다.

■ **승무 – 김 현 숙 (단원)**

중요무형문화재 제97호인 승무는 한국의 대표적인 민속춤으로서 느린 염불장단에 맞추어 긴 장삼을 위로 휘뿌리어 만들어지는 선과 하얀 고깔 아래 보일 듯 말 듯한 단아한 정취, 사뿐히 걷는 흰 버선발의 날렵한 움직임이 그 특징인데 특히 춤의 중반 이후, 법고놀이의 북가락은 몰아지경에 이르게 한다. 이번 공연에서는 북가락의 정교함과 장삼이 만들어 내는 춤선의 아름다움에 중점을 두고 연구해 보았다.

· 뒷장고: 장래훈(수석단원)

■ **도살풀이춤 – 김 동 숙 (단원)**

중요무형문화재 제97호인 도살풀이춤은 민속무의 하나로 흉살과 재난을 없애 행복을 맞아하게 한다는 안심입명의 종교적 소원에서 비롯되었다. 故김덕순씨가 경기도 도당굿판에서 배웠고 딸 김숙자씨가 전수하여 중요무형문화재 제97호 도살풀이춤으로 지정되었다. 무복은 화려하지 않은 흰색이며 긴 수건에 의한 공간상의 유선이 다양하다. 이번 공연에서는 도살풀이 특유의 가락과 호흡법을 중심으로 연구해 보았다.

■ **설장고춤 – 홍 기 태 (훈련지도), 김 미 란 (단원)**

설장고는 풍물놀이 중 장고잽이의 재주를 최대한 보여주는 놀음으로, 혼자 치는 홑장고가 있고 둘이 치는 쌍장고가 있다.

특히, 삼도설장고는 경기, 충청, 호남, 영남 지방의 풍물이 가지고 있는 좋은 장고 가락들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고 놀음 중 최고라 할 수 있다.

본 작품에서는 다스름으로 시작해 휘모리, 동살풀이, 자진모리의 여러 가락을 엮어 이를 무대화 하였다.

〈악사〉 꽹과리: 이 주 헌(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 장고: 이 윤 혜(수석단원)
북 : 이 성 원(부수석단원) 징: 김 주 연(단원)